

선각 기상인 - 와다(和田)의 삶

기상청 기후국 기후예측과
전 영 신

내가 처음 와다박사의 얼굴은 본 것은 2000년 1월 일본 기상연구소 도서관에서이다. 소박한 인상을 자아내는 사진이었다. “음~ 일본의 기상역사에서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구나. 그 당시에 나비넥타이를 한 것을 보면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키는 크지 않은 듯하고... 콧수염을 기르셨네...”

그 당시 나는 “고대조선관측 기록조사보고”(1917년 발행)란 책에서 와다유지(和田雄治)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옛날 흠비 관련 자료를 분석했던 적이 있었을 뿐, 사실 그 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웬지 모를 그 분에 대한 호기심은 자꾸 깊어 갔다.

어떤 분이였을까?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을까?

그는 1859년 9월 4일 일본 후쿠시마(福島二本松)에서 和田安道の 여섯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藩士였던 부친의 영향인 듯 어려서부터 二本學館에서 漢學을 배웠고, 11살 때는 큰 형인 和田安之를 따라 동경에 와서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가 나중에 프랑스 유학을 가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1871년 10월, 13세로 대학남교(大學南校: 후에 開成學校로 바뀜)에 입학하였다. 그 때 Erwin Knipping란 독일사람이 그 학교의 교사였는데, 일본 근대 해상기상 관측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다. 당시 27세인 이 독일인 교사가 와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듯하다.

그 후 와다는 1879년 7월 동경대학 이학부 물



리학과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 때 와다는 21세였으며, 네 살 위인 졸업동기생 나카무라(中村精男: 제3대 일본 중앙기상대장)와 같이 기상계에 발을 디디게 된다. 나카무라는 와다의 일평생의 동료로서, 형님으로서, 일생의 반려자인데, 당시 내무성 지리국장을 지낸 나카무라의 친척의 추천으로 둘이 함께 지리국에 입사를 하였다. 그것이 1879년 12월 24일의 일이며, 와다는 측량과에서 측지, 천

측에 따른 기상관측 조사업무에 종사하게 되었고, 1882년부터 지리국에서 근무하게 된 Erwin Knipping를 도와서 예보업무를 담당하였다.

와다는 27세(1885년 6월)에 예보과장이 되었고, 이듬해 7월 내무기사(국장급)가 되었다. 지금에 비한다면, 초고속 승진을 한 것 같다. 그러다가 1889년 4월에 휴직하고 프랑스에 유학을 가게 된다. 그 곳에서 물리학, 기상학을 연구하였으며, 국제기상학회에 참가하여 국제 폭풍우표의 제정을 제창하기도 하고, 다른 학회에서 일본의 지진에 관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2년후인 1891년 4월 귀국, 일본 중앙기상대 예보과장으로 복직하여, 일본기상사업의 기반을 구축, 발전을 기획하였다. 이 때가 그의 나이 33세, 기상관측연습회를 개설하고, 구분보고의 창간, 후지산 꼭대기에서 겨울에 관측하였으며, 투병법(현대 해양관측장비 부이의 전신인 듯)에 의한 일본 근해의 해류의 움직임을 조사하는 등 매우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시작하여 청나라와 한국에 기상관측망정비를 계획하여 3월에 지금의 인천

에서 임시관측과장을 병행하면서, 관측소의 신설과 기상기술자를 양성하였다. 같은 해 7월부터 인천제 3관측소장으로 부임하여 한국, 만주 각지에 관측소를 설치하면서 군사 행동에 협력하였다. 총독부관제 제정후에 조선총독부관측소장으로 우리나라의 기상사업을 육



성하면서, 세종·영조때의 측우기, 경주 첨성대, 누각, 1908년 당시의 우리나라 각 관측지점의 기후표 등을 소개한 것이다. 그 책이 1910년에 발행된 “韓國觀測所學術報文”이다. 이 책은 일본어로 작성되었는데, 영어, 독어, 불어로 번역하여 합본한 약 100쪽의 서적이다(이 책의 복사본을 지난 5월 손추운교수님께서 기상청에 기증해 주심). 그는 이 책의 서문에 감격에 넘쳐 이렇게 썼다. “지금 이것을 편찬하여 <학술보문>이라 부르고, 점차 권을 거듭하여 간행코자 한다. 본문에 담은 것이 반드시 기상학에 관한 것은 아님은 본 관측소가 한반도에서의 고대측후학의 발달 연혁까지 조사하여 과학사상자료에 더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일영독불어 등을 채용한 것도 역시 널리 학자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함이다. 윙희 4년 2월, 인천에서...” 이 학술 보문의 제1권은 1910년 2월말, 일본 동경에서 출판되었다. 제2권으로 출판될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 1917년 조선총독부관측소의 이름으로 발간된다. 이 책이 “古代朝鮮觀測記錄調查報告”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강우량 측정기, 고문서를 조사하여 201쪽의 책이 발간된 것이다. 1913년에 논문을 제출하여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기에 이 책에서는 와다박사로 쓰여있다. 그리고 이미 1915년 3월 31일, 몸에 병이 든 것을 이유로 퇴임한 상태여서 서문에는 와다의 후임인 제2대 관측소장 히라다(平田)의 이름이 실려 있다.

그는 퇴임후 일본 임업시험장의 위촉을 받아 하천의 홍수 경보조사, 오사카 매일신문사의 원조를 받아 대규모 투병법에 의한 해양 조사 등

을 수행하였고, 1917년 조선총독부관측소에서 “古代朝鮮觀測記錄調查報告”의 발행한 이듬해 겨울인 1월 5일 58세로 일생을 마쳤다.

그 후 13년 후인 1931년 10월 18일 당시 조선총독부관측소 구내-지금의 인천기상대 마당에

홍상이 건립되었다. 지금은 사진으로만 전하며, 이 홍상은 인천상륙작전 중에 파괴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본성이 따뜻하고, 정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취미도 다양하였으며 인간 관계도 매우 원만하고, 술을 좋아하여 말술로 마셨다고 한다. 그는 우리 민족의 위대했던 과학문화의 유산을 찾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쟁 때문에 사장될 뻔한 우리의 귀중한 역사와 기록들...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기상학사의 맥을 찾는 것이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 和田雄治, 1910: 韓國觀測所學術報文, 農商工部觀測所, 100pp.
- 和田雄治, 1917: 古代朝鮮觀測記錄調查報告, 朝鮮總督府觀測所, 201pp.
- 荒川秀俊, 1941: 日本氣象學史, 科學新書19, 河出書房, 113-115.
- 日本氣象廳, 1986: 日本氣象百年史, 433-434.
- 한상복, 1992: 한국기상관측요람기의 중요인물. 한수당연구자료집, 231-237.
- 全相運, 1993: 잃어버린 章. 전과과학사, 231-237.

선각 기상인 - 와다(和田)의 첫 작품 “韓國觀測所學術報文(제1권)”